

죽음을 피하지 않는 믿음

1. 배경 — 베다니 삼남매 (11:1-16)

- 마리아 · 마르다 · 나사로.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 (3 절, 36 절: "사랑하신다" 두 번 반복).
- 소식을 들으시고 이를 더 지체하심 → 도착 시 죽은 지 나흘.
- 왜 지체하셨는가? → 죽음을 ()하도록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, 죽음을 ()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심.

2.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과 한계 (11:17-37)

마르다의 믿음 (21-24 절)

- "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오"
- 마지막 날 부활을 믿음 (24 절)

마리아의 반응 (32절)

- 마르다와 같은 반응

3. 핵심 선언 — "나는 부활이요 생명" (11:25-26)

"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,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() 아니할 것이다. 네가 이것을 ()?"

- 진짜 죽음 = 예수님과 () 없이 사는 것.
- 몸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. () 없이 사는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.
-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, 죽음은 ()이다.

4. 사랑하시기에 "그래서" 지체하셨다 (11:5-6)

- 헬라어 접속사 οὖν (oun) = "()" / "그러므로".
- 개역개정은 생략, 새번역은 "그런데", ESV·NIV·NASB 는 "So(그래서)"로 번역.
- 주님의 지체와 무응답이, 때로는 ()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.

5. 12 장 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 (12:1-26)

- 마리아의 향유 부음 (12:7) — 예수님의 ()을 위한 예비. 죽음을 피하지 않는 믿음.
- 예루살렘 입성 (12:12-15) — 사람들은 ()으로 환영 / 예수님은 ()으로 입성.
- 한 알의 밀 (12:24) — "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() 그대로이고, 죽으면 () 맺느니라."
- 제자의 길 (12:26) — "나를 따라오라." 예수님의 ()가 곧 제자의 길.

6. 마무리 — 표적의 책 클라이맥스 (12:23-28)

"내 영혼이 지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... 아버지여,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." (27-28 절)

- "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,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." — ()의 약속.
- 이 표적·이 담화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개 사역을 ()하심

이번 주 묵상

- 본문 읽기: 요 11:17-27, 12:23-26 을 천천히 두 번 읽기.
- 관찰: 마르다의 믿음(21-24 절)과 예수님의 답(25-26 절)을 비교해보기.
- 적용: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"죽음" 같은 상황은 무엇인가? 주님의 지체가 사랑이었던 경험이 있는가?
- 한 줄 기도: "주님,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믿습니다. 나의 () 두려움을 맡깁니다."

다음 주 예고 13주차 — 섬김의 리더십 (요 13장, 세족식) | 미리 읽어오기: 요한복음 13장 전체